

알코올과 니코틴 “한방에 해독”

벤스랩, 신물질 알코틴-X 출시 ... 숙취물질과 니코틴 제거

벤스랩(대표 고영균)은 체내에 흡수된 알콜과 니코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신물질 <알코틴-X>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.

섭취된 알코올은 혈액을 따라 간장으로 들어가 아세트알데히드로 전환되는데 아세트알데히드는 어지러움, 구토, 흉안 등 숙취의 원인이 되는 독성물질로 시간이 지나면 효소에 의해 이산화탄소로 배출된다.

<알코틴-X>는 알콜의 신속한산화를 유도하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이산화탄소로 신속하게 바꾼다.

아울러 <알코틴-X>는 독성물질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간세포의 손상을 최소화 해주는 기능도 있다고 알려졌다.

한편, 담배의 유해성분인 니코틴은 체내에서 질산염과 아민의 결합체인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환되는데 <알코틴-X>는 니트로사민의 생성을 방해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.

특히, <알코틴-X>는 니코틴이 코티닌으로 변환하는 것을 도와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.

<알코틴-X>는 쑥, 솔잎, 셀레늄 등 10여 가지의 식물성 천연물이 배합된 물질로 수원대 기능성 생명소재연구소의 안전성검사와 독성테스트에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벤스랩은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천연항균제와 니코틴 해독제 <니코엔> 등을 생산하고 있다. <심혜련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0/24>